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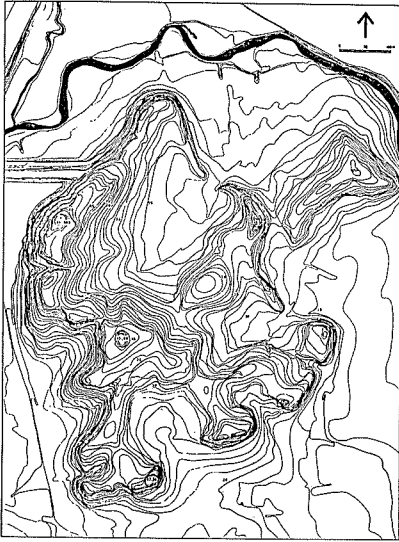


그림 1. 夢村土城 地形圖 1985(서울大學校 發掘調査報告書에서 轉載)

## 百濟의 建築

백제는 高句麗 朱蒙의 아들 溫祚를 始祖로 하는 작은 部族國家였던 伯濟를 기반으로 漢江流域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百濟가 中央執權적인 貴族國家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近肖古王(346~375)때로 생각된다. 그는 369년경에 益山으로 그 중심지를 옮긴 것으로 생각되는 馬韓을 멸하여 그영토를 전부 차지하였다. 그리고 371년에는 고구려의 平壤城까지 쳐서 故國原王을 전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현재의 경기, 충청, 전라 3도의 전부와 강원, 황해 兩道의 일부까지를 점유하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서쪽으로 東晉, 남쪽으로 倭와 통하여 국제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였다.<sup>1)</sup> 384년 枕流王代에는 불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觀念體系와 寺院建築文化의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게 되었다. 4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의 廣開土王과 長壽王의 확장세력에 대항하여 중국의 宋 및 魏의 南北祖와 통하고, 신라와 동맹을 맺었으나 475년에는 수도 漢城이 함락돼고 따라서 文周王은 지금의 公州인 熊津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또 538년 聖王代에는 도읍을 다시 옮겨 지금의 扶餘인 泗泚로 정하였다. 이 때에는 불교가 대단히 진흥되어 일본에 까지 佛經, 佛具, 佛像 등을 보내서 불교를 전하였고 이에 따라서 백제의 건축문화는 일본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종족으로 출발하여 그문화 특성이 초기에는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보다는 훨씬 남방에 위치하여 발전해온 백제는 고구려문화에 비하여 그 특성이 溫和하고 柔軟하였고 부드럽고 격높은 藝術文化를 갖추고 있다. 초기에는 樂浪 및 帶方郡에 접하고 東晉, 宋, 齊, 梁, 陳 등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sup>2)</sup> 百濟文化는 5세기末에서 7세기초 사이의 황금기를 이룩하였다고 믿어진다. 특히 불교문화는 신라와 일본에 까지 영향을 크게주어 선구적인 役割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都城

### 河南慰禮城

처음에 溫祚는 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였다(三國史記)가 B.C. 6년에 漢山下에 방책을 세우고 도읍을 옮겼다고 하며 371년에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고 다시 도읍을 漢山城에 옮겼다. 그러나 현재 이들 백제초기 도읍지인 河南慰禮성이나 漢山城 등이 어느곳인지 학자들의 여러 說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를 갖고 결정할 단서를 갖고 설명 할 수 있는 곳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백제의 한성시대의 중요유적으로서 夢村土城, 한강연변에 있는 風納理토성 廣州郡서부면에 있는 二聖山城등이 있는데 몽촌토성의 부근 일대에는 백제의 고분으로 알려진 芳蕘洞 古墳群과 石村洞 古墳群 등이 있고 그 북서쪽에 전기 풍납리토성 그리고 북동에 이성산성과 남동에 南漢山城등이 있다.

### 夢村土城

몽촌토성은 수년전부터 서울대학교에서 발굴조사중에 있는데 성곽은 粘土를 사용한 版築기법을 보이며 성곽 외부에는 일부 목책을 둘렀던 것이 확인 되었고 또 壕字(壕塹)를 두어 방비에도 철저했다. 성의 사방에는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성은 당시 하천에 연하여 낮은 구릉의 자연지세를 이용한 작은 규모인 것이다. 이곳에서는 발굴조사 결과 백제초기의 토기편들과 瓦當등이 출토되어 백제 한성시대 중요 유적이 확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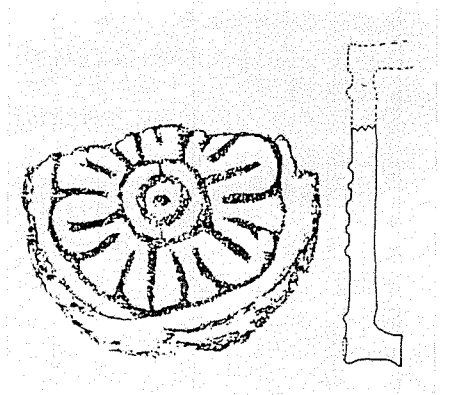


그림 2. 夢村土城 出土物

◆ 張慶浩  
32년생으로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61) 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에서 76년 홍익대에서 석사학위 및 85년 2월 동대학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87년 3월 제 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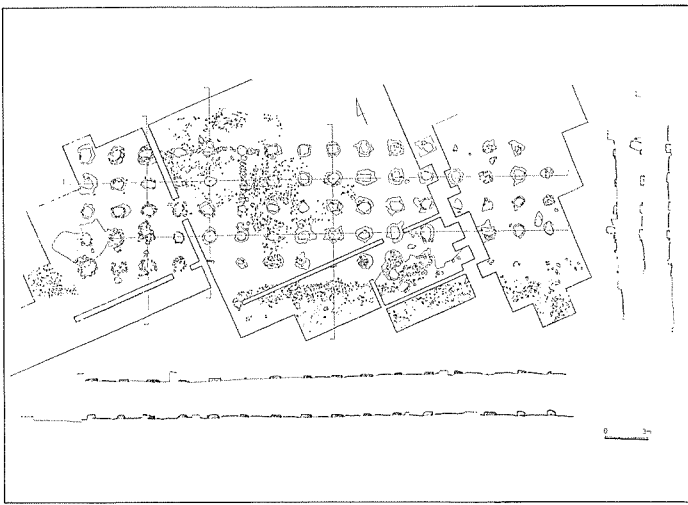


그림 4. 二聖山城 長方形 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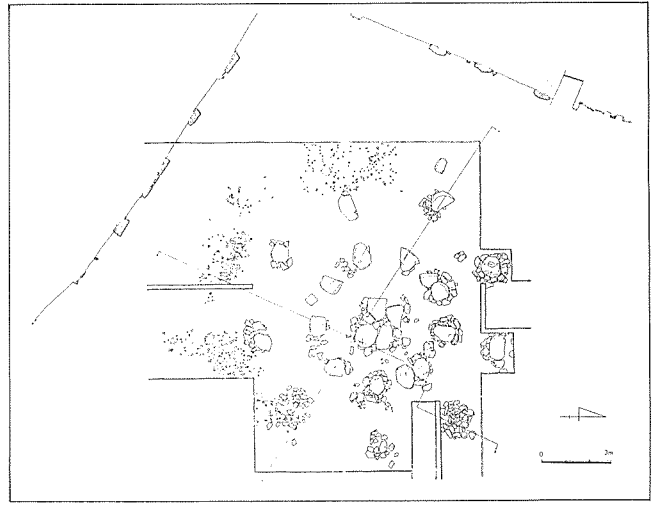


그림 6. 二聖山城 九角建物址

주위성곽의 길이는 약2285m 이고 면적은 약6만7천평으로 추산이 된다.<sup>3)</sup>

성곽내에는

움막住居地가 5개 노출 되었는데 평면은 대체로 方形 또는 장방형을 이루고 기타貯藏孔이 노출되었는데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시대는 3세기~5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이 토성의 건립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가장 빠른 시기에 속하는 유물이 중국 西晉시대 (265~316)에 속하는 灰釉錢文陶器片이 저장공에서 출토됨을 보아 그 最上層年대를 3세기로 추정하고 있다.

二聖山城 :

몽촌토성에서 동북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二聖山城은 神檀實記에 기록되어 河南위례성으로 지목되기도 한 백제의 산성인데 1986년부터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그 성격이 차차 밝혀지고 있다.<sup>4)</sup> 이곳은 한강을 넘어 동쪽에 위치한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초일리에 있는 역시 그리 높지않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 西·北·東쪽은 한강을 끼고 높지않은 평원지역이 펼쳐지므로 前望이 좋고 要害를 이루는 위치이다. 특히 이 二聖山城을 중심으로 몽촌토성과 풍납리토성 암사리토성 그리고 남한산성, 龜山城등이 사방으로 약 4~5km의 거리를 두고 있음은 이 주위가 가장 중요한 중심요새였으리라는 발굴조사자의 언급이 주목된다. 산성의 최고 높이는 약200m이며 성곽의 길이는 약1.7km이다. 발굴조사에서 여러곳에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이중에는 정면이 16間이고 측면이 4間인 장방형 건물지와 또 9각형의 평면을 나타내는 특수형 건물지와 8각형 건물지등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고대건물지중 유례가 없는 특수형 건물지가 발견되어 발굴조사자는 이것이 天祭壇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여기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산성의 축조년대를 확실시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나 출토되는 기와의 蓮花紋이나 등문양등을 고려할 때 백제의 한성시대 후기에서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특징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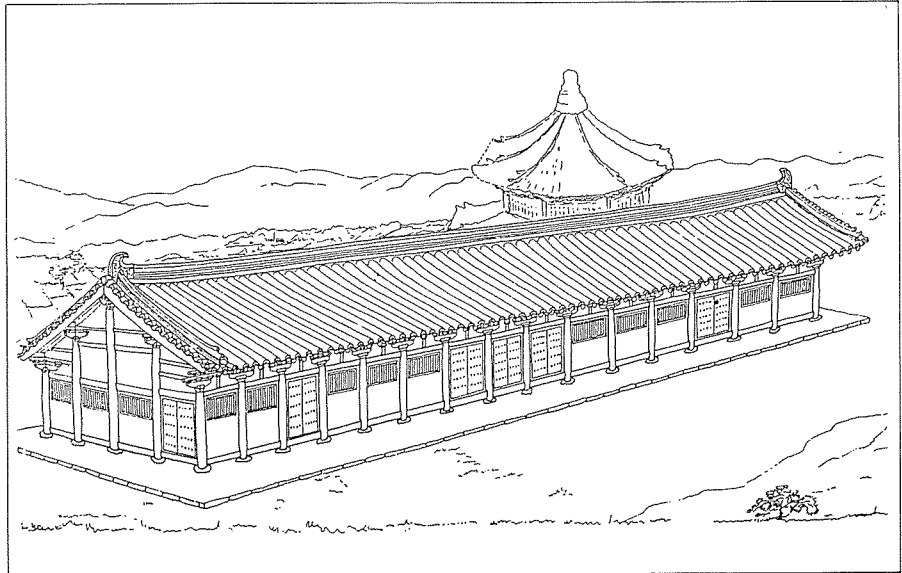


그림 5. 長方形建物 推定復元圖. 金東賢: 文化財管理局 (漢陽大學校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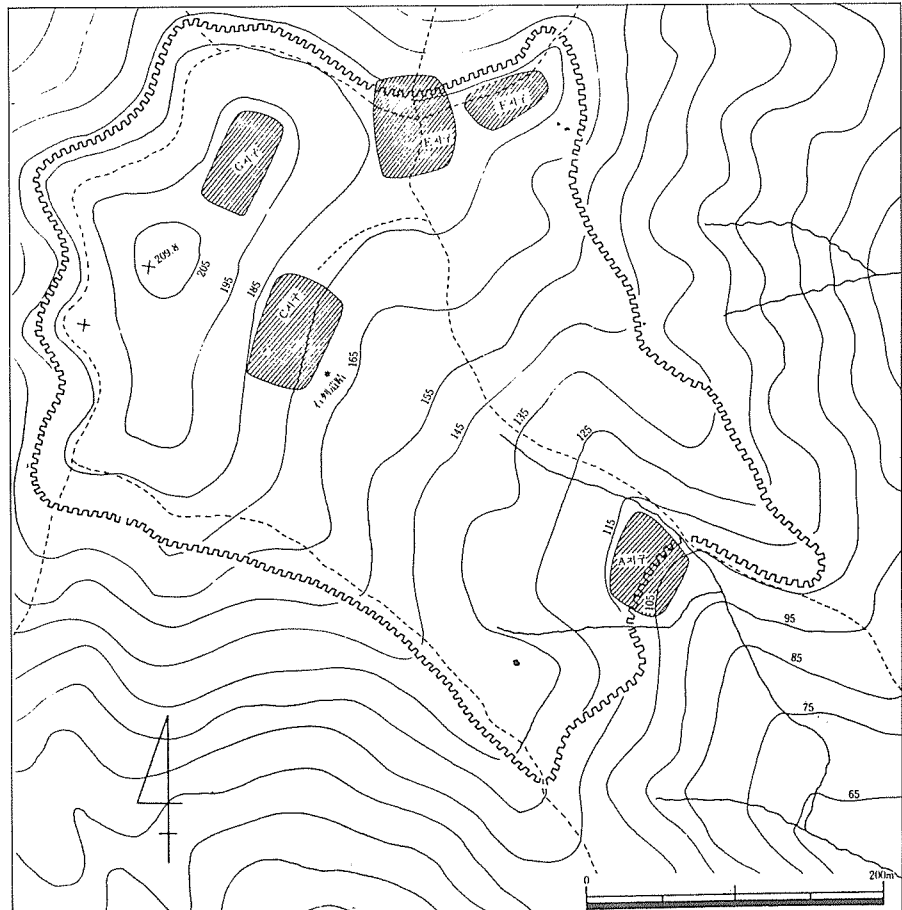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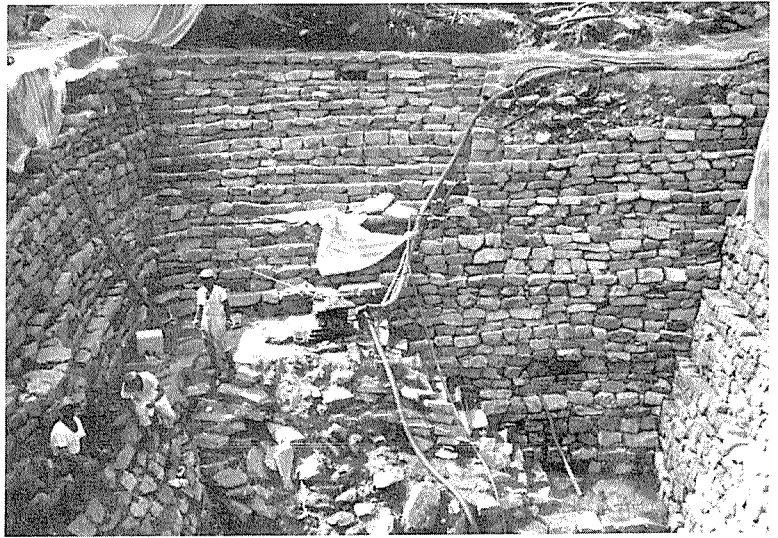


그림 3. 二聖山城發掘區域 位置圖 (漢陽大學校, 發掘調査報告書에서 轉載)



公山城 靈隱寺 앞 蓮池

**公山城 :**

公山城은 백제가 5세기말 웅진으로 都邑을 옮긴 후 축조했던 성곽이다. 「삼국사기」 성왕조에 修葺熊津城, 이라 하여 이것이 바로 공산성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526) 「삼국사기」에 나타난 백제 웅진시대의 성곽기록을 살펴보면 「大豆山城의 修葺, 牛頭城, 耳山城, 沙井城, 加林城, 長嶺城, 雙峴城, 高木城」 등의 기록과 「炭峴에 設柵」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많은 성곽들이 축조내지 수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기록으로 보아서 그 위치가 확실한 것은 가림성과 탄현 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칭으로 보아 거의가 산에 위치한 독립된 산성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앞의 한성시대의 백제성곽 기술에서도 나타나듯이 백제는 도성을 축조함에 그주위 요소요소에 거리를 두어 독립된 성곽을 축조하므로서 이들이 서로 유기적관계를 갖고 連繼의인 방어를 함으로서 도읍을 지키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성은 북으로 금강을 끼고 있어 자연적 방어선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삼면은 그리 높지않은 야산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는데 지금은 조선시대 축조한 石城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원래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지만 지형으로 보아 대략 같은 범위의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어 外城 둘레가 약 2km 가 약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성은 1980년 부터 공주사범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에서 발굴조사 해 왔는데 기록에 있는 (三國史記) 臨流閣址가 노출되었다. 건물의 평면은 대체적으로 정방형을 이루고 있는데 남면이 5칸이고 東側面이 6칸인 건물지로서 礎石 밑에 받침 적심이 2~3장의 不定形 版石을 맞추어 평편히 놓은 것이었다. 이러한 적심석은 백제에서 흔히 사용했던 것으로 믿어지는데 익산 미륵사지에서도 일부 볼 수 있는 기법이다. 그러나 고대에는 이 적심석 自體를 초석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소위 그레이 초석을 이루었다고도 생각된다. 이 건물지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편과 기와편인데 토기는 灰色 無紋土器로서 백제계의 것이 많지만

기와의 문양은 백제 8瓣 蓮花紋은 편으로 1점만 출토되고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의 특징을 보이는 문양와가 많이 출토되어 백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추정 挽阿樓址는 城 東문지 동쪽밖에 있었는데 원래의 토성을 낮추어 築基를 삼아 그위에 축성 하였던 것인데 그 규모는 남북 길이 약 18m 동서폭이 약 6.6m 이다. 건물지 상부의 유구는 교란이 심하여 건물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기단을 이룬 석축원형 일부가 노출되었는데 그 쌓은 수법은 춤이 낮고 길이가 짧은 角石을 밑에서 부터 안으로 들어 쌓기하여 마치 고구려의 통구성의 성돌 쌓기나 근래에 발굴조사된 부소산성내 남문지 양측에 쌓았던 성벽과도 같았다. 이곳에서 출토된 연화문 막새는 單瓣八葉紋으로서 子房內 蓮子가 많이 붙은 6세기에 속하는 백제와당이었다. 공산성에서는 이밖에 폭이 2.46m 扉道길이 6.45m 되는 소규모의 동문지가 발굴조사 되었는데 양면에 석축을 쌓았던 것 같았고 문지도리석이 그 앞 양측에 놓여있다. 이 역시 출토되는 백제 토기편으로 보아 백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 성곽 북동쪽에 靈隱寺 밖에 蓮池와 樓址등이 발굴조사 되었으나 전자는 축조 연대를 확인할 수 없었고 후자는 조선시대의 누각지였다. 또 1986~1987년 사이에는 현 雙樹亭 앞 평지를 발굴조사 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여러동의 건물지와 우물등이 노출되었지만 아직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그 성격을 알 수 없다. 이상으로 공산성의 발굴조사된 유구에 대하여 설명했지만 지금의 남은 건물들은 조선후기의 것이거나 그후에 세워졌던 것이다. 이 공산성은 백제의 宮城과 연결되었던 성곽으로 추정되어 宮의 중심은 이 남쪽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것은 마치 부여에 부소산성 남쪽에 窟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는 것과도 같다.

**扶餘 扶蘇山城(泗泚城) :**

백제의 사비성은 백제가 처음으로 羅城을 돌리어 도시 전체를 防禦하는 도성으로서의 개념을 실제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公山城과 같이 그리

높지않은 야산에 자리잡고 북쪽에는 白馬江을 자연의 방어벽으로 삼았고 성곽은 외성과 내성을 두어 2중 이상의 방어벽을 구축하였다고 믿어진다. 산성의 동쪽과 서쪽에는 라성이 꼬리와 같이 연결되어 남쪽에 전개되는 도시를 둘러싸았던 것이다. 현재城의 둘레는 약 2.2km 인데 城내에는 軍倉址, 堅穴兵營址, 서복사지, 남문지 등이 근래 문화재 연구소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었다. 군창지는 城 동남측 봉우리 위에 위치하는데 초석이 비교적 잘남아 있어 그 평면이 밝혀 졌는데 長方形의 '口' 자의 평면을 이루었다. 건물의 외벽선에는 火防壁쌓기의 석축이 남아있어 창고건물이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건물이 존속했던 것은 출토되는 기와편으로 보아 고려나 조선초기까지 경영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출토된 炭化米의 탄소측정 결과로는 9세기 초로 나타나고 사용된 초석은 비록 자리는 바뀌어도 백제초석으로 추정되어 이 건물은 백제에서부터 후에 계속하여 개축되어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산성내 남서측에는 西腹寺址가 위치하는데 그 이름은 알수없고 서편 산중턱에 있다고 하여 불인 이름이다. 사지는 발굴조사 결과로 백제의 一塔式 가람임이 밝혀졌다. 산성의 동서 남북에는 각각 門址로 추정되는 터가 남아 있는데 이중 남문지로 추정되는 유지를 1986년부터 발굴한 결과 문루 형식의 건물지를 확인 하였고 그 양 옆에 석축벽이 남아있었는데 여러번에 거쳐 重修와 改築을 알수있고 시대는 출토유물로 보아 백제에서 고려시대까지 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것은 이문지의 초석 배열로 보아서 그 평면이 한때 정방한 間에 측면이 2間이었던 평면을 한것을 알수 있었는데 이것은 문의 出入을 집의 박공쪽으로 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의 박공쪽을 정면으로 하여 문을 두고 출입하는 것은 伽耶의 家形토기(국립중앙박물관소재)에서도 볼 수 있고 경주月城 東門址(1間×2間) 발굴조사에서도 밝혀지고 일본 九州지방에

그림 7. 公山城內 遺蹟位置圖  
(公州師大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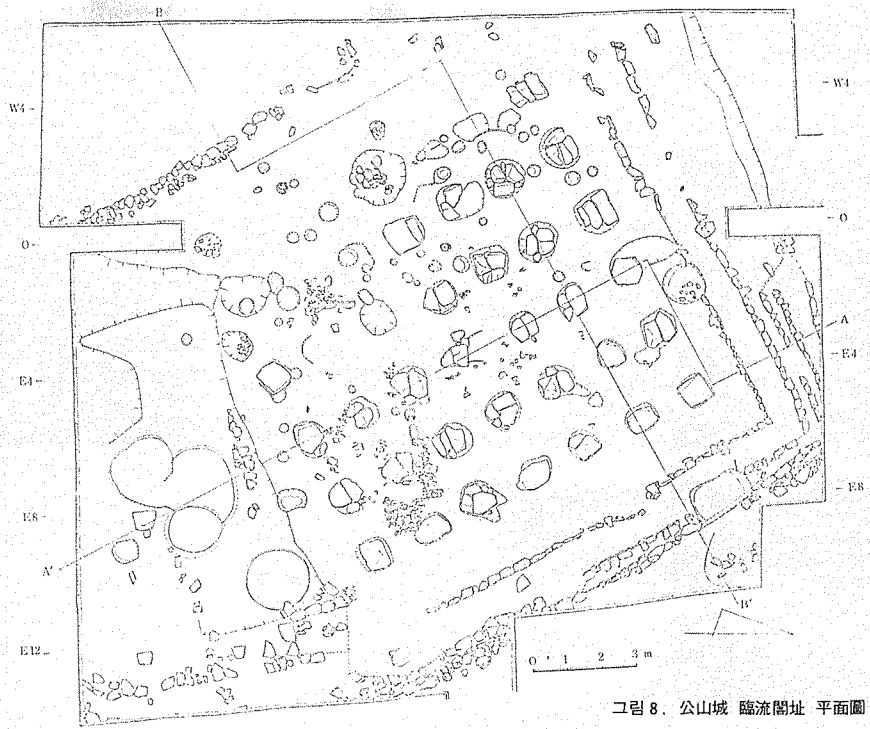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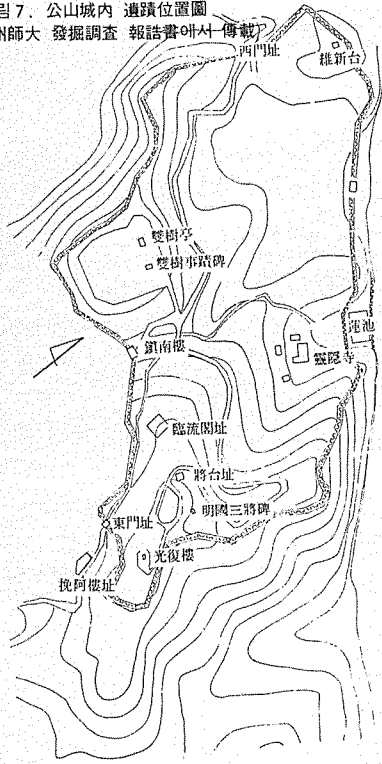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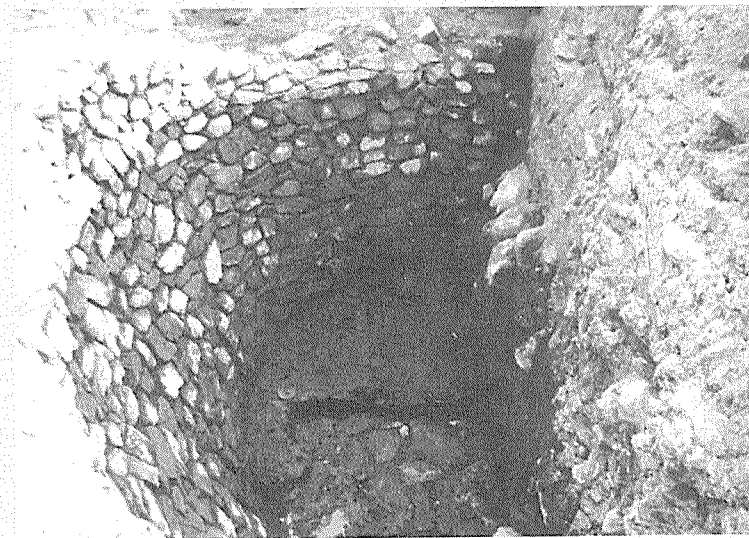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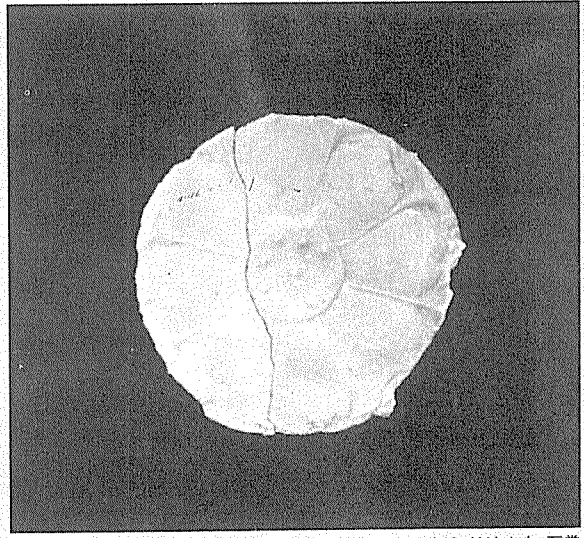


그림 8. 公山城 臨流閣址 平面圖



雙樹亭 앞 百濟塘池 (1985年 露出)



公山城 塘池出土 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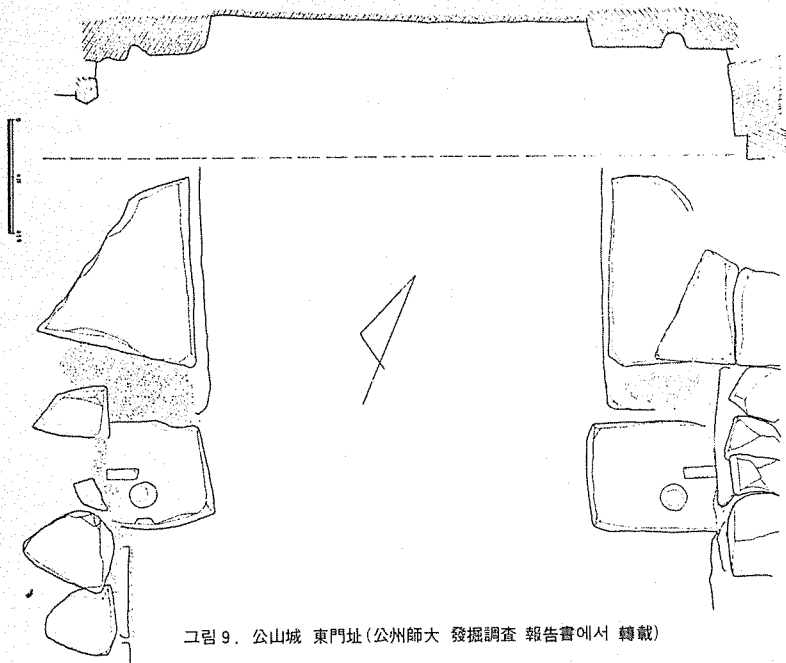


그림 9. 公山城 東門址 (公州師大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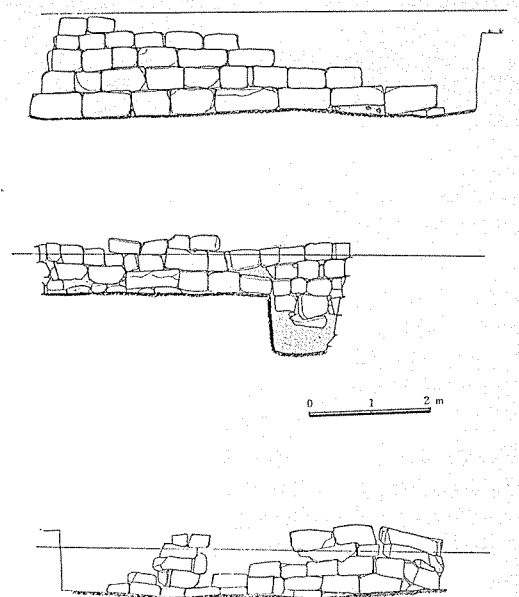


그림 10. 阿樓址 西側石築 立面圖  
(公州師大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轉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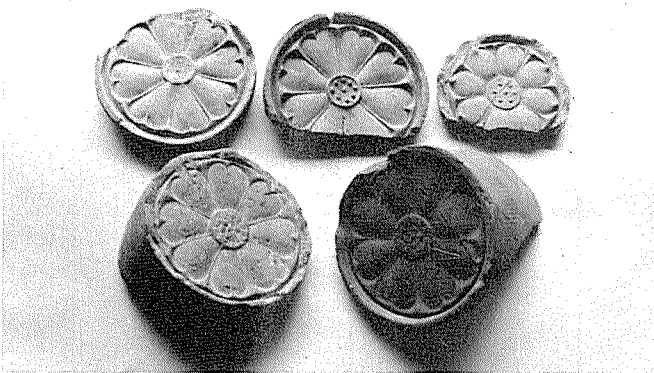
扶蘇山城(軍倉址)西→東



扶蘇山城 南門址 全景



扶蘇山城 南門址 石架



扶蘇山城內出土 遺物(各種 百濟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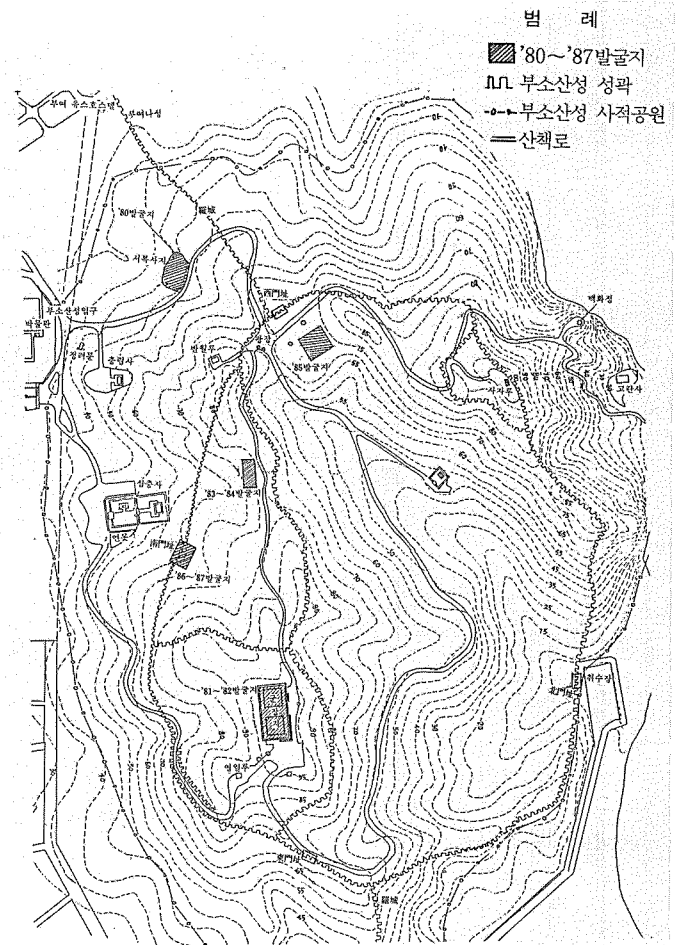


그림 11. 扶蘇山城 配置圖

多賀城에서도 밝혀진바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식은 古代로부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고대에 측면출입을 흔히 사용한 것은 지붕을 낮게 꾸미었기 때문에 開口部를 넓게 利用할 수 있는 부분이 박공쪽의 벽이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진다.

부소산성 남문지의 양측에는 일정한 區間에 석벽을 쌓았는데 그 높이는 약 1.2m로서 짧고 층이 낮은 角石을 밑에서부터 뒤로물러 가면서 쌓은 것이다. 또 석축면에는 약 3.5m내외의 간격으로 나무기둥을 석축에 물려 세우게 하였는데 이 위에는 防柵板을 세웠던 시설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다. 이밖에 토성은 대부분이 粘土質 흙으로 다진 版築法을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 잡석을 혼용하여 土石混築을

하고 있다.

부여羅城은 그 길이가 약 8km로서 東羅城은 부소산성 북동편에서 시작하여 靑山城 외곽을 감싸고 石木理에 이르는데 이곳에는 공주방면으로 통하는 문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석목리를 옛날에는 石門里 또는 城門里라고 불렀다 한다. 다시 羅城은 陵山里 뒷산의 능선을 지나 論山 가도를 통과하여 동문다리를 지나 疉창리 뒷산을 지나 백마강(錦江)까지 이어졌었다 하지만 현재는 청산성 동쪽으로 약 200여 m 석목리에서 동문다리까지 그리고 筆書峯에서 疉창리까지 흔적이 있다. 한편 西羅城은 산성의 서변에서 시작이 되어 백마강을 따라 나란히 뻗어 <빙고재> <장성백이> 그리고 <성말리>에

이어진다. 이렇게 하여 부역을 방어하는 羅城은 남쪽에는 옛날에는 지금과 달라 금강이 흐르고 동문다리에서 궁남지를 지나 군수리사지까지는 旺浦川이 흘러 자연적인 방어가 되므로 羅城을 두지 않았다한다.<sup>6)</sup>

□註□

- 1) 李基白, 韓國史新論, 改正版, 一潮閣, 1985
- 2) 尹張燮, 韓國建築史, 東明社, 1973
- 3) 夢村土城, 發掘調査報告書,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1987
- 4) 二聖山城, 發掘調査報告書, 漢陽대학교, 1987
- 5) 公山城, 公州師大百濟文化研究所, 1982
- 6) 扶餘郡誌, 第二章城址 p. 714, 1987